

그·날·의·도·로

돈화문로에서 만나는 조선시대 왕의 길



서울의 심장부, 도심 속에서도 옛 왕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돈화문로는 창덕궁의 아름다운 궁궐 정취와 종묘의 신성한 분위기를 잇는 역사적 도로이다. 돈화문로는 조선시대 왕의 길로서 특별한 의미와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에서 시작하여 종묘까지 이어지는 약 1.85km의 길로 과거 왕이 행차하던 어도(御道)였다.



역사적 배경

돈화문로는 조선 태종 5년(1405년)에 창덕궁이 건립된 이후, 조선왕조의 주요 도로망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창덕궁과 종묘를 연결하며 왕권과 제례를 상징하는 중요한 축이었다. 특히 이 길은 조선시대 대로 중에서도 유일하게 당시의 폭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도로로, 역사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돈화문로는 왕이 종묘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사용되었으며, 외국 사신을 맞이하거나 백성들과 소통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어가(御駕)가 출궁할 때 백성들이 징이나 팽과리를 울리며 직접 상소할 수 있었던 곳으로, 왕과 백성 간 소통의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했다.



돈화문로와 문화

돈화문로 주변은 조선시대 상업과 문화가 융성했던 지역이다. 시전 행랑(상점 거리)이 번성했으며, 국립국악원의 전신인 이왕직악부와 같은 전통 음악 기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국악기 상점과 전통 공예점들이 이곳에 남아 있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돈화문로는 피맛길(백성들이 고관대작들의 마차 행렬을 피해 다니던 골목길)과 순라길(순찰 경로) 등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특히 서순라길은 종묘 담장을 따라 순찰하던 길로, 지금은 역사문화탐방로로 지정되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현대 속의 돈화문로

현대에 들어서 돈화문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걷기 좋은 역사 탐방길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시는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돈화문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돈화문 앞 광장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을 없애 광장 형태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

- ① 돈화문로는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을 향해 출발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왕실 의전과 관련된 중요한 행사 공간이었다.
- ② 순종 황제가 이용한 국내 최초의 자동차가 다닌 길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이는 근대와 전통이 교차했던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 ③ 백성들이 징이나 팽과리를 울리며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격쟁(擊鐙)의 장소였다는 점에서 돈화문로는 조선시대 민주적 소통 공간으로서도 의미가 깊다.

돈화문로는 단순히 창덕궁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넘어, 조선시대 왕조의 권위와 백성과의 소통, 그리고 문화적 융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오늘날에도 돈화문로는 과거의 흔적을 간직하며 현대 서울 시민들에게 역사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제공한다. 🇰🇷

출처 및 참고자료: ©서울한옥포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